

<제2강>

국어의 음운 체계

1. **최소대립쌍** : 음운 하나의 차이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묶음.

예) 물 : 불, 물 : 말, 마음 : 마을, 아이 : 오이, 말[馬] : 말:[言]

2. **변이음과 상보적 분포**

1) **변이음** :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된 것.

ㄱ. /ㄱ/ - [k] : [g] : [k̚] - 가, 아가, 약

ㄴ. /ㄴ/ - [l] : [r] - 물, 달리; 노래, 나라

ㄷ. /ㅅ/ - [s] : [ʃ] - 상, 신

ㄹ. /ㄹ/ - [n] : [ɲ] - 나라, 녀석

2) **상보적 분포(배타적 분포)** : 한 음소의 변이음들은 나타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.

즉, 어떤 변이음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다른 변이음이 나타나지 않는다. 이때 이들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고 말한다.

3) 어떤 음성들이 한 음운의 변이음이 되기 위해서는 음성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, 실현되는 음성 환경이 서로 상보적(배타적)이어야 한다. 가령, /ㄱ/은 어두에서는 무성음 [k],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음 [g], 어말에서는 불파음 [k̚]로 실현되고, 이들은 상보적으로 분포한다. **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변이음들은 한 음운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.**

<연습> ‘/ㅎ/’과 ‘/ㅇ/’에 대하여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.

1. 이들의 분포를 확인해 보자.

2. 이들을 서로 다른 음소로 처리하는 이유는?

☞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. 음성적 유사성이 없다

3. **분절음운**

1) **자음** : 목청을 통과한 공기가 목안이나 목안에서 장애를 받아 만들어진 소리.

(1) **자음의 분류 기준**

① **장애를 받는 위치(=조음 위치)** : 입술소리[脣音], 잇몸소리[齒莖音], 선입천장소리[硬口蓋音], 여린입천장소리[軟口蓋音], 목청소리[喉音]

② **장애를 받는 방법(=조음 방법)** : 파열음(또는 폐쇄음), 마찰음, 파찰음, 비음, 유음; 평음, 경음, 격음

(2) 자음 체계표

[자음 체계표]

조음위치 조음방법	순 음	치 조 음	구 개 음	연구개음	후 음
	평 경 격 음 음 음				
파열음	ㅂ ㅃ ㅍ	ㄷ ㅌ ㅍ		ㄱ ㅋ ㆁ	
파찰음			ㅈ ㅉ ㅊ		
마찰음		ㅅ ㅆ			ㅎ
비 음	ㅁ	ㄴ		ㅇ	
유 음		ㄹ			

2) 모음 : 목청을 통과한 공기가 목안이나 입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입안에서 공명되어 나는 소리

(1) 단모음 :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.

- ① 단모음의 분류 기준 : 혀의 앞뒤 위치, 혀의 높낮이, 입술의 모양.
- ② 단모음 체계표

[단모음 체계]

혀의 앞뒤 입술모양	전설모음		후설모음	
	평순	원순	평순	원순
혀의 높낮이				
고모음(閉母音)	ㅣ (i)	꺾 (ü=y)	ㅡ (ɨ)	ㅓ (u)
중모음	ㅓ (e)	ㅓ (ö=ø)	ㅓ (ə)	ㅓ (o)
저모음(開母音)	ㅓ (ɛ)		ㅓ (a)	

[다만, '꺾, ㅓ'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. (꺾 → [wi], ㅓ → [we])]1)

(2) 반모음과 이중모음

① 반모음(활음, 과도음) [2개]

- [y] : 혀가 'ㅣ'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 갈 때 발음되는 반모음.
- [w] : 혀가 'ㅓ/ㅓ'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 갈 때 발음되는 반모음.
- ※ 자음으로 볼 수도 있음 :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는 점 때문.

② 이중모음 :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가면서 발음되는 소리. 소리 나는 동안에 혀가 움직이거나 입술의 모양이 변함. [11개~12개]

1) '외'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될 때는 [we]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어서 '꺾'와 같은 발음이 된다. 따라서 단모음은 최소 8개, 최대 10개이며 이중모음은 최대 12개 최소 11개가 된다.

- [y] + 단모음 : ㅟ[ya], ㅠ[yə], ㅡ[yo], ㅢ[yu], ㅣ[yɛ], ㅤ[ye]
- [w] + 단모음 : ㅞ[wa], ㅟ[wə], ㅠ[wɛ], ㅡ[we], (ㅢ[wi], ㅣ[we])
- 단모음 + [y] : ㅥ[iy]²⁾

3. 비분절음운(=운소/초분절소)

1) 비분절음운은 분절음에 얹혀서 실현되는데,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단어의 음장과 문말의 억양이 있다.³⁾

2) 음장

(1) 단어에서 실현되며, 모음의 장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변별성을 지닌다. 국어의 변별적 장음은 어두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.

예) 말이 많다. [마리 만타.(馬)]/ 마:리 만타.(言)

(2) 장단에 의해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

예) 눈[眼]/눈[雪], 솔[松]/솔[刷子], 굽다[屈]/굽다[灸], 거리[街]/거:리[距離], 굴[石花]/굴:[窟], 대장(臺帳)/대:장(大將, 隊長), 무력(無力)/무:력(武力), 발[足]/발[簾], 밤[夜]/밤[栗], 벌[罰]/벌[蜂], 성인(成人)/성:인(聖人), 말다[卷]/말:다[禁止], 묻다[埋]/묻:다[問]

3) 억양 : 문말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성조와 유사하지만, 단어보다 큰 단위에 얹혀서 실현되며 어휘적 변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.⁴⁾

ㄱ. 다희 : 우리 언제 만날까?(↘)

만익 : 일요일.(↘)

다희 : 일요일?(↗) 일요일은 바쁜데.(↘)

ㄴ. 어디 가?(↘) 집에 가?(↗)

집에 가.(→)

집에 가.(↘↗)

2) ‘ㄴ’은 하강이중모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‘-’가 반모음인지 ‘ㅣ’가 반모음인지 불분명하다. 표준 발음법에서 ‘ㄴ’은 [ㄴ/ㅣ] 로 발음하도록 하여 ‘ㅣ’가 핵모음이고 ‘-’가 반모음인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. 그러나 전라도 방언에서 ‘ㄴ’은 어두에서 [ㄴ]로, 비어두에서 [ㅣ]로 발음되며, 조사에서는 [ㄴ/ㅣ]로 발음되어 ‘-’가 어두에서는 핵모음이고 비어두에서는 반모음이다. 참고로 로마자표기법에서는 ‘의’를 [ui]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3) 비분절음운은 이 외에도 성조(tone), 강약(loudness) 등이 더 있다. 중세국어는 성조언어였다. 현대 경상·함경 방언은 고저 악센트(pitch-accent) 체계로 남아있다.

4) 상승조 : 판정의문문, 놀람, 달램의 감정적 의미 전달.

하강조 : 부드러운 느낌의 평서문. 설명의문문.

평탄조 : 단정적이고 사무적인 느낌의 평서문, 권의적인 명령문. 청유문.

굴곡조 : 부드러운 느낌의 청유문.

[표준 발음법 : 음의 길이]

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,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(1) 눈보라[눈:보라], 말씨[말:씨], 밤나무[밤:나무], 많다[만:타]

(2) 첫눈[천눈], 참말[참말], 쌍동밥[쌍동밥], 수많이[수:마니]

다만,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.

반신반의[반:신 바:늑/반:신 바:니], 재삼재사[재:삼 재:사]

[붙임]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‘-아/-어’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 소리로 발음한다.

보아 → 봐[봐:] 기어 → 겨[겨:] 되어 → 돼[돼:]

두어 → 뒤[뒤:] 하여 → 해[해:]

다만, ‘오아 → 와, 지어 → 저, 찌어 → 찌, 치어 → 쳐’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

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.

1.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

감다[감:따] - 감으니[가므니] 밟다[밥:따] - 밟으면[발브면]

신다[신:따] - 신어[시너] 알다[알:다] - 알아[아라]
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.

끌다[끌:다] - 끌어[끄:러] 뺏다[뺏:다] - 뺏은[뺏:븐]

벌다[벌:다] - 벌어[버:러] 썰다[썰:다] - 썰어[써:러]

없다[업:따] - 없으니[업:쓰니]

2. 용언 어간에 피동,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

감다[감:따] - 감기다[감기다] 꼬다[꼬:다] - 꼬이다[꼬이다]

밟다[밥:따] - 밟히다[발피다]
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.

끌리다[끌:리다] 벌리다[벌:리다] 없애다[업:썰다]

[붙임]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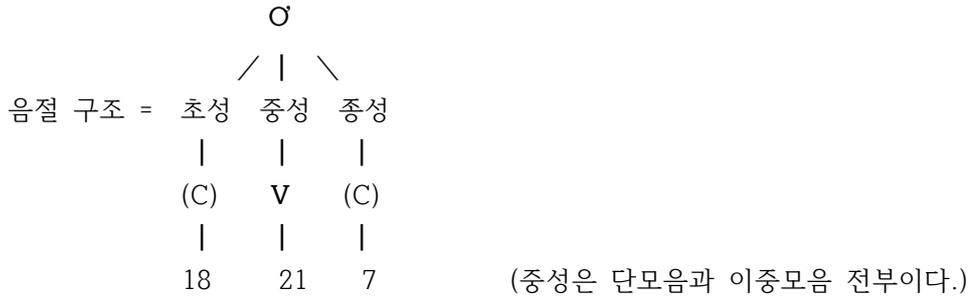
밀 - 물 썰 - 물 쏘 - 살 - 같이 작은 - 아버지

4. 음절

1) 개념 :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발화의 최소단위 또는 한 문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낱덩이. 국어에서 모음만이 성절음이기 때문에, 모음의 수에 의해 음절의 수가 결정된다.

예)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으므로 [새미 기픈 무른 가뭄에 그치지 아느므로]

2) 음절구조제약 : 분절음이 음절을 구성하는 규칙.



(1) 국어 음절의 필수 성분은 모음이다. 국어에서는 모음만이 성절음(成節音)이다. 따라서 모음의 수와 음절의 수는 일치한다.

예)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어야 되겠니? [절믄사라미지베마니이써야되겐니]

(2) 현대국어에서 초성과 종성에는 최대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. 따라서 두개의 음절이 연결될 때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.

① 영어의 'milk[milk]'는 1음절로 음절말에 겹자음을 지닌다. 그러나 우리말은 음절말의 위치에 하나의 자음만을 허용하는 음절구조상 음절말에서 연속되는 둘 이상의 자음을 발음할 수 없다. 이 단어를 굳이 한 음절로 발음하거나 적는다면 [밀] 또는 [믹]이 되어야 한다. 그러나 이렇게 되면 원음과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모음을 첨가하여 우리말의 음절구조를 만족시키면서 원음과 비슷하도록 [밀크]라고 발음하고 적는다. 'strike[straik], first[f3:rst]'도 같은 원리에 의해 각각 '스트라이크, 퍼스트'로 발음하고 적는다.

② 'max'를 '맥스'로 적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.

③ 이런 음절구조 때문에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나타난다.

예) 닭 [닥], 넓다 [널따] / 닭이[달기], 넓어[널버]

(3) 현대국어의 경우 'ㅇ'을 제외한 18자음이 초성에서 발음될 수 있고, 종성에는 7자음(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)만이 발음될 수 있다.

① 현대국어에서 표기상으로는 종성의 자리에는 총 16개의 자음과 11개의 겹받침이 쓰인다. 이는 현대 정서법이 표의적 표기법(형태음소적 표기법)을 채택했기 때문이다.

② 중세국어에서는 초성과 종성의 위치에서 적어도 두 자음까지는 발음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한다. 이것은 시대에 따라 음절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. 다만, 초성에 두 자음이 올 때에는 첫 자음은 'ㄴ'이어야 하고, 종성에 두 자음이 올 때에는 첫 자음이 'ㄹ'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다.

③ 중세국어는 종성에서 8자음(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)이 발음되었고, 그것이 표기에 반영되었다. 중세국어는 표음적 표기법(음소적 표기법)을 채택했기 때문이다. 표음적 표기법은 근대국어에서도 계속되었다.

④ 중세국어는 음절이 표기에 반영된 음절적 표기법이였다. 연철 표기.